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 부처의 삶



묘현사 주지 묘각 스님



“제법실상의 우주적 기묘한 모습은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묘법연화경>의 본불본법(本佛本法)은 모든 중생 몸과 마음에 갈무리 돼 본디 깨끗하여 더럽고 속됨이 없으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며 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크고도 원만함이나 시적이 없는 아득한 옛적에 스스로 깨달은 부처님이다.”

젊은 수행자가 지리산 법계사에서 목숨을 건 수행을 하다가 홀연히 발적현본(發迹顯本: 근본을 드러냄)으로 견처(見處)를 얻으며 ‘마음 거울’에 비친 일구를 토해냈다. ‘뉘발스님’으로 알려졌던 묘련 스님(1924~1998). 일생을 <법화경> 연구에 매진했던 스님은 자나 깨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실상묘법연화경>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생전에 ‘불자들이 <법화경>만 알고 <무량외경> <관보현보살행법경>은 생소하니 법화사상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삼부경을 편역해야 한다’고 원력을 세웠다. 그 원력은 입적 2년 후인 2000년에 간행된 <법화삼부경> 편역본으로 화향했다.

그때 묘련 스님의 원고 교정과 <법화삼부경> 편집 제작을 맡았던 묘각(妙覺·74) 스님. <법화삼부경>을 편집하면서 앞부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둔 세계지도와 만국기를 역동적인 그림으로 디자인 해 실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인류와 만국이 하나(一佛)임을 드러내는 그림이었다. ‘진리도 하나 세계도 하나 중생도 하나’라는 묘련 스님의 가르침도 “조국통일 열매 맺어 세계평화 나타나니 일불국토 묘하구나 만국중생 법이로세 삼독망상 진흙연꽃 삼학으로 피어나니 영산정토 경이로세”라는 계승으로 정리해 실었다. 뒷부분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법화경>을 연구하고 수행한 스님들을 진영과 함께 소개했다.

묘각 스님은 묘련 스님의 속가 동생이지만, <법화경> 대의를 직접 배운 후학이기도 하다. 전남 장성 축령산 묘현사는 묘련 스님이 ‘뉘발’로 평생 일군 복밭이다. <석가여래행적승>을 지은 고려 충숙왕 때의 운목무기(雲默無奇) 스님이 수행했던 곳이다. 취서사 관불암 등의 이름으로 도량이 이어져 오다가 한국전쟁 때 완전 소실됐다. 그 폐허에 묘련 스님이 인연 있는 불자들과 도량을 일구어 <법화경> 가르침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이다. 묘각 스님을 뵈러 가는 길에서는 땀이 향기가 나고 있었다. 길가에도 밭에도 파란 씩들이 얼굴을

내미는 봄 날, 모자를 눌러쓴 아낙들이 봄나물을 캐는 장면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저 그림에 이름을 붙인다면?’ 객창감에 사로잡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실상춘경연화도(實相春景蓮花圖)’라고 답했다. 묘현사 스님들에 대한 자료를 본 후유증(?)이 그렇게 드러난 것인가?

얼었던 땅이 질척질척 풀려 있었다. 포크레인 한 대가 차도 사람도 다니기에 불편한 가파른 길을 고치고 있었다. 토굴 가는 길은 좁은 토끼길이어야 어울린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일 것이다. 도량 입구에 묘련 스님의 부도가 뾰얀 얼굴로 서 있고 새로 법당을 지을 터에는 주춧돌만 놓여 있었다.

“스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전 10시. 묘현사 공양간은 깨끗했다. 공양주 보살님 한분이 차분하게 공양을 차리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스님 나오실 겁니다. 아침 안 드셨지요?”

“먹고 왔습니다. 안 차려셔도 됩니다.”
“기차님 때문에 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절은 하루 두 끼 먹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5시.”

자비희사 윤리도덕 등 일등국 서원 정진

‘법화사상’ 흥포 위해 다양한 도서 간행

머쓱해졌다. 사시마지를 올리고 공양하려는 절의 일상을 모르고 ‘김치국’ 먼저 마신 풀이었다. 얼른 생각해 보니, 하루 공양을 두 끼로 정했다는 절은 처음인 것 같았다. 사시 예불이 끝나고 간소한 공양이 소리 없이 시작돼 소리 없이 끝났다.

“얼마만이야? 10년 넘었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는 대로야. 서울의 국청사와 간경도감을 힘에 부쳐서 손을 댄 거나 다름없고 여기서 큰스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공부하고 봉사하며 지내고 있어.”

“묘련 큰스님 유지를 받들고 하시지만, 그래도 스님, 묘각 스님의 공부 자리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허허. 첨부터 어려운 질문일세.”
잠시 침묵. 묘각 스님은 도서출판 간경도감을 통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했었다. 간경도감이 펴낸 책에는 묘련 스님의 <법화경> 해설서도 있지만 묘각 스님이 지은 이차돈·자장 율사·진록 대사 등 고승

전과 <알기 쉬운 법화경> <법화경과 원자물리학> 등 법화경 관련 서적이 대부분이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진리의 원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느끼고 자기화 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다만, 내가 공부하면서 세운 서원이 있기는 해. 그 서원은 다섯 가지인데, 법화교리일등국, 도인다생일등국, 자비희사일등국, 윤리도덕일등국, 타국교수일등국 등이야.”

“일등국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그 다섯 가지 덕목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길 서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럼 리가 있나? 우리나라로 한정 지으면 <법화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지. 당장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하고, 그 힘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서원하고 있지.”

묘각 스님의 다섯 가지 서원은 간절했다.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푸념하는 게그맨이 있지만, 스님의 일등국에 대한 서원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 법화교리일등국을 서원한 것은,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이고 실상 그대로가 다 부처라는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것이지. 경의 이름을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온 중생이 이미 그대로 일탈승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야. 도인다생일등국은 말 그대로 제대로 도를 닦아 성취한 선지식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야. 요즘은 말로만 도인 행세하는 가짜도인이 지나치게 많아. 수행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류에게 불행이지.”

스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의 유명인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문화계나 학계는 물론 고등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불교는 형이상학의 종교다. 형이하학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모를 리 없을 그 인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한 말을 했으니 불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왜곡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느 큰스님이 일간지의와의 인터뷰에서 <법화삼부경>을 소개했는데 신문기사에 <무량외경>이 <무량수경>으로 잘못 나왔다. 스님은 신문사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알아봤다. 어이없게도 큰스님이 말실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신문사는 기사정정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결국 ‘독자투고’ 형식으로 <무량외경>이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불교계 지도자들이나 학자 언론인 등이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묘각 스님은...

서울에서 태어난(1937년) 스님은 서경보 스님을 은사로 불국사에서 출가했으며 묘련 스님에게 <법화경>을 배우고 연구했다.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도서출판 간경도감이라는 출판사를 열어 <법화경> 관련 서적들을 다수 출판했다. 저서로는 <실상묘법연화경 요점> <알기 쉬운 법화경>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전남 장성 묘현사에서 불사와 법화사상 흥포를 위한 저술에 매진하고 있다.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를 온전히 전해주는 책!

7권본 능가경 역주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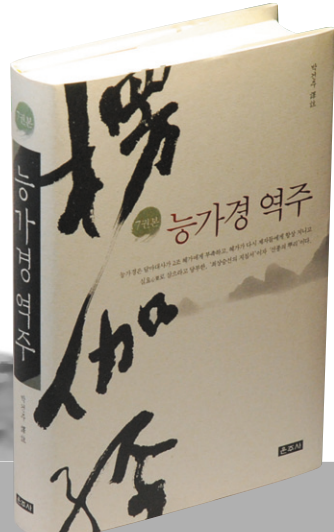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心地의 요문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開示入하게 할 것이니라.”

—달마대사가 혜가에게

“내가 보견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인자仁者가 이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증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마대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월하고 난해하여 그동안 외면받아 온 『능가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역주!



박건주 역주 | 신국판양장 | 640쪽 | 값 27,000원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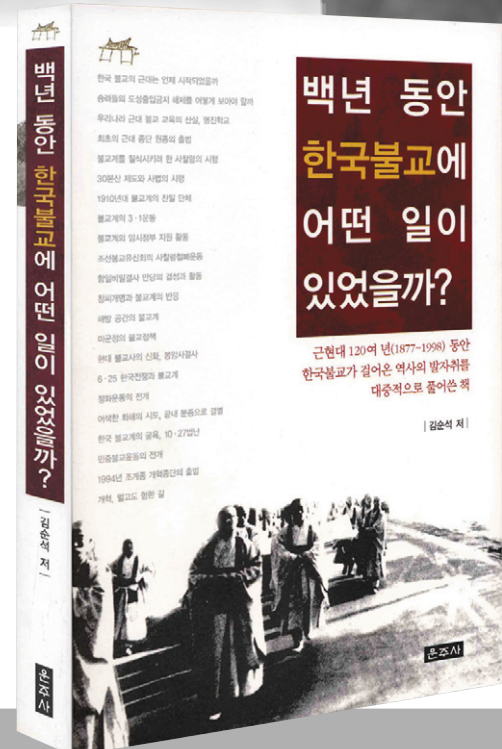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김순석 저 | 신국판 | 368쪽 | 값 13,000원